

# 건설환경 전문가 육성 필요



## ‘실내환경 및 건설환경기술포럼’ 성황리 개최

**최**근 국민들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실내환경 및 건설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지난 6월 15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실내환경 및 건설환경기술포럼’에는 250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됐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가 주최하고 주간신문 에코뉴스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실내환경분야와 건설현장환경관리 분야 등 모두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포럼 참여자와 주제발표자와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등 관련분야의 공통 관심사를 토론하는데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평이다.

실내환경분야에서는 실내공기, 층간소음, 주택성능 등급제, 환기시설 등에 대해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건설현장 환경관리분야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 건설현장 환경관리 규제제도 개선방안, 건설폐기물 등이 다루어졌다.

실내공기와 관련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운수 박사는 “서울시는 현행 서울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기준 조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준 개정 및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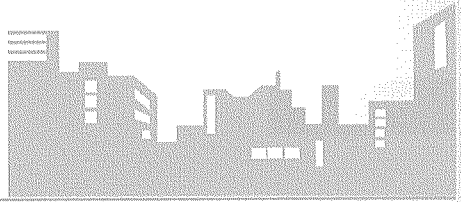
기질 유지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서의 제작과 홍보, 현행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건축물 환경인증제도의 활용, 실내 공기질 표준모델의 공개 및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측정자료의 DB 구축 및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실천대책을 제시했다.

김하근 대한주택공사 수석연구원은 층간소음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반건식 온돌공법이 습식온돌공법에 비해 중량충격음이 약 4dB 정도 우수하고, 무량판구조가 벽식구조보다 약 3dB 정도 중량충격음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연구소 이대우 박사는 주택성능등급제도에 대해 발표했는데 현대건설의 2000세대 이상의 한 지역을 모델로 한 가상 데이터를 현장에서 발표하여 관심을 끌었다. 실내공기, 소방, 구조, 바닥충격음 등 주택의 성능의 등급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 이 제도는 건설업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박사의 발표는 타 기업들에게도 모델이 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대우건설기술연구원 장현재 박사는 건설업체들이 최근 표준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환기문제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건설업체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여 관심을 모았다.

장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환기장치 가동에 따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농도는 풍량에 관계없이 약 40%의 저감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기회수 0.3회/h, 0.5회/h, 0.8회/h의 환기량 차이에 대해 실내공기질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환기회수를 0.5회/h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겨울철 환기장치 가동시에 콜드 드레프트의 발생가능성, 강풍시의 역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홍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관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소개했는데 관련법규를 준수하더라도 피해관계가 입증될 경우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소개하여 건설업체들이 당혹해하기도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다양한 건설현장의 합리적이지 못한 규제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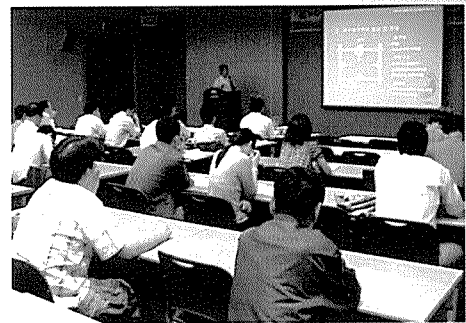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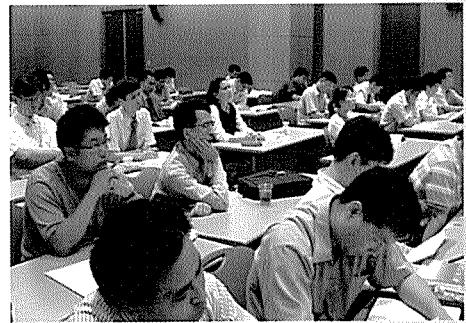
현행법에서는 발주자가 환경관련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결과를 토대로 공사규모, 현장여건, 공법, 공사기간, 시공법 및 사용장비 등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규정이 관련 환경법령에 산재되어 있으며, 환경보전비 산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공종별 필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규정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의 입지조건, 공사규모, 시공법 및 사용장비 등을 고려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보전비를 계상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환경관리 전담인력 및 추가 환경관리비용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환경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인건비 계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기술사 시험에 건설환경 과목의 추가 방안도 제안됐다.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박정호 팀장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의 생산 및 이용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설·환경신기술·신공법 등의 확대보급,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기준, 성능기준, 시방기준, 시험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생산업체의 대형화 및 업종전문화를 통해 재활용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상 의무사용비율에 따라 PQ 심사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및 행정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상품 카달로그 등이 전시되어 건설사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시종일관 발표자와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전개되어 건설환경 분야의 포럼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